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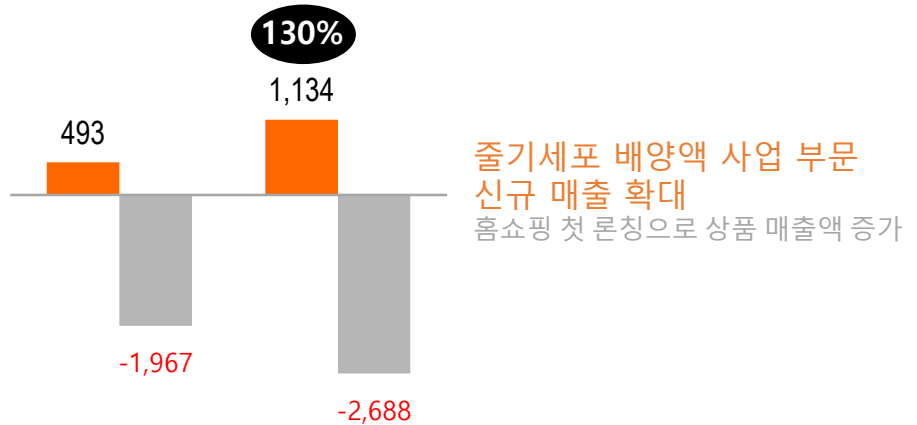
강스템바이오텍 1분기 경영실적

분기 최대 매출액 달성
-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부분 매출액 증가

1. 2017년 1분기 실적 리뷰

(단위: 백만원)

■ 매출액 ■ 영업손실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11억원 달성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홈쇼핑 론칭이 올해 3월 이루어지면서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2차 완판 방송 이후 5차 방송까지 네 차례 준비된 물량이 모두 매진되었으며 지난 5월14일 6차 방송 진행 후 추가 방송 편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에도 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에 따라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6억 손실을 보였습니다.

2. 향후 전망

홈쇼핑 판매 이외 다양한 판매 경로 확보를 위한 노력 중

현재 홈쇼핑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 경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부문은 배양액 화장품뿐 아니라 배양액 원료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배양액 화장품의 활용분야를 넓히고자 라비오와 화장품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 라비오 모회사인 다미화학을 통해 해외 화장품 원료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군의 경우 자사의 줄기세포치료제의 본격적인 매출 발생 이전에 회사의 매출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매출처 확대, 판매 가능한 네트워크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마케팅 등의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 매출 확대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3. Q&A

Q 홈쇼핑 이외에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매출액 증가 방안이 있습니까?

A 매출액 증가를 위해 판매처 확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로 침체되어 있던 중국 시장이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월 중국 현지 최대 규모의 화장품 행사인 상하이 국제미용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중국 인들도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상태라 중국 홈쇼핑 등을 통해 현지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양액의 활용분야를 넓히고자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들과 해당 진행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INSIDE THIS ISSUE:

1분기 실적 요약	1
자회사 크로엔 소개	2
IPR Activity	3

강스템바이오텍, 비임상 CRO 크로엔 자회사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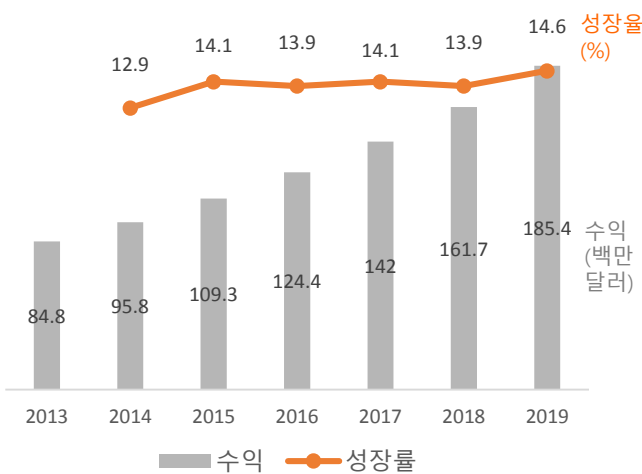
- 전략적인 협업 체계 구축
- 신규사업 진출의 교두보 마련

1. 크로엔 소개

크로엔은 비임상시험 분석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CRO 기관으로 화학물질 등의 독성 평가, 유해성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 GLP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CRO 부문에서는 강소업체로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지난 2016년 식약처 및 환경부 GLP 반복 독성시험 분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향후 비임상 뿐만 아니라 임상 CRO 사업으로 확장 등 신 사업 부분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국내 CRO 시장 현황 및 전망

연평균 성장률('14-'19) **14.1%**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일반적으로 모든 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인허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비임상-임상-인허가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허가라는 최종단계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용역비용을 받고 시험을 대행 해주는데 이 모든 형태를 CR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CRO 시장은 약 70조 원 가량이며 연평균('10-'17)성장률 10.5%로 급성장 중입니다. 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활발한 미국 및 유럽에서는 CRO 산업이 독립 산업으로 그 위상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내 CRO 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글로벌 CRO 시장 대비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상개발 단계별로 시장을 살펴보면 임상3상 시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임상시험 단계에서의 국내 CRO

시장은 연평균 7.7%로 성장해 2019년 1530만달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정부의 지원, 전문인력, 연구기반 시설, 환자접근성 등의 장점으로 초기 단계 임상시험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강스템바이오텍과 크로엔은 전략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는 농약부문 이외에 의약 및 화학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채널 다양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부문에 있어서는 화평법에 대한 기대감이 큼니다. 정부의 진행사항을 지켜보아야하나 가슴이 살균제 사건 이후 시민 단체에서는 개정안 적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평법이란 어떠한 화학물질도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유통 및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한 물질은 과거 500여종에서 7000여종까지 확대됩니다. 이 유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비임상 시험 중 GLP독성평가가 필수적이며 해당 물질은 신규화학물질에도 해당되어 향후 안정적인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집중하고 있는 반려동물 대상 임상 서비스와 이를 통한 전문동물용 의약품 개발, 그리고 강스템바이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직접 분화 방식 iNSC기술을 활용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사업화 등 신규 사업 개발도 양사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Q&A

Q 자회사 취득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당사는 크로엔 박영찬 대표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19만 8000주를 약 27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영찬 대표는 동 지분매각 대금 중 14억 원으로 당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분 스왑 형태의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단독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양사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7.03~2017.05 IPR Issue

- 2017.05.14**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GS홈쇼핑 6차 방송
- 2017.05.08** 류마티스관절염 논문 'F1000Prime' 선정
: 보도자료 배포
- 2017.04.27**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GS홈쇼핑 5차 방송
- 2017.04.25** 이태화 신임 대표이사 인터뷰 - 더벨
: 인터뷰 기사
- 2017.04.24**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GD11 새로운 뮤즈 '임화영' 선정
: 보도자료 배포
- 2017.04.23**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GS홈쇼핑 4차 방송
- 2017.04.21** 이태화 신임 대표이사 인터뷰 - 아주초대석
: 인터뷰 기사
- 2017.04.20**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2017.04.19** 아토피피부염 임상2상시험,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 보도자료 배포
- 2017.04.12 ~ 04.14** 2017 BIO KOREA 참석
- 2017.04.09**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GS홈쇼핑 3차 방송
- 2017.03.24** 정기주주총회 및 대표이사변경
: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 2017.03.22**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GS홈쇼핑 2차 방송
- 2017.03.21** 라비오와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개발 사업 협력 계약
: 보도자료 배포
- 2017.03.05**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GS홈쇼핑 1차 방송
: 완판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및 공시의 경우, 제목 클릭 시 해당 정보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IR Newsletter Contact Info

IR홍보팀 이지연 팀장

Tel : 02-2036-7508

E-mail : jylee@kangstem.com

김미리 대리

Tel : 02-2036-7514

E-mail : mlkim@kangstem.com

본 IR Newsletter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속,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